

‘이유있는 공개구직’에 이유 덧붙이기

임재해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국학부장



1. 선정적 보도보다 더 염려스러운 학계의 반응

“서울대 교수가 공개 구직장”이라는 선정적 제목 아래 “국문과 조동일 교수 신문광고 고려중”이라는 부제까지 달고 나온 『일간 스포츠』의 사회면('96년 3월 24일)을 우연히 보면서, 모험적인 학문의 길을 개척하고자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한 교수의 학문적 의도가, 기껏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는 일로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통속적인 대중지의 선정적 보도가 아니라, 공개구직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 행

정당국과 학계의 무반응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해당 부처와 학문활동을 실제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대학 당국, 그리고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 모두 대학의 연구 현실에 대하여 약속이나 한듯이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대학과 학문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누군가 말해야 하고 누군가 따져야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몇몇 언론기관에서 선정적 보도나마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대학을 일깨우는 유일한 장치이다.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이 충분히 이유 있다고 공감하며 이유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2. 연구 여건 조성 없는 연구실적 평가의 문제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외국 대학처럼 연구실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언론에서는 국내 교수들이 외국 교수들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무라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러면서도 외국 대학 교수들은 주당 강의 담당시수가 우리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연구를 돕는 유급 조교나 비서가 교수마다 배정되어 있으며 실험실 및 연구 도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든가, 또는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비율이 현격하게 적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 따라서 조동일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연구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연구실적 평가만 능사로 삼는 일은, 교수들을 지식의 전달자 노릇을 하도록 제도화해 놓고서 실제로는 훌륭한 학자로서 지식의 생산자 노릇까지 담당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이다.

교육부가 연구 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수들을 닦달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저의가 없다면, 평가에 앞서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과감한 조치부터 먼저 단행해야 한다. 우선 주당 기준 시수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6시간 이하로 대폭 줄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 정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서 교수와 학생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어야 한다. 특히 교수가 책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고 하는 불행한 사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도서관의 도서 구입이 행정절차의 편의에 얽매어 있

고, 장서의 질과 상관 없이 장서 보유량에 의존하여 도서관의 도서 확보율을 저울질하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참고도서가 실험기구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연과학 관련 학과는 실험실습비라는 명목으로 각종 실험실습 기구를 구입하는 제법 거액의 예산이 확보되고 도서 구입비도 별도로 배정되는 데 비하여,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과는 도서비만 배정되는 데에도 자연과학 관련 학과와 같은 금액이 책정되기 일췌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책이 곧 실험실습 기구나 같다는 점에서 실험실습 기구 확보 차원에서 도서 구입비를 충분히 배정하고 참고도서를 갖추는 데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3. 저서를 하찮게 여기는 교수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서를 보면 연구를 북돋우고 자극하고자 마련된 장치들이 한결 같이 본격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현실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연구비에 의해 집필된 논문을 학회지에 한정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저서 차원의 장편 논문은 의도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한편, 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실적 평가 기준 역시 연구저서를 논문 한 편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어, 저서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단편적인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도록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조동일 교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비에 의한 논문결과보고서 건의사항을 통해

몇 차례 이 점을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논문의 분량을 제한하는 학회지가 아닌 대학의 연구소 논문집에 연구비에 의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 그리고 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는 저서를 논문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저서 차원의 연구업적을 내는 교수는 저서와 논문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책 한 권을 쓰려면 논문 10편을 쓰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저서의 평가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저서를 쓴 교수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서형 교수들의 주장은 이래저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실적 평가에 참여하는 다수의 교수들은 자기 스스로 저서보다 논문을 쓰는 쪽이므로, 저서에 점수 비중을 많이 줄 리가 없다. 학문의 발전이나 연구의 실제적 평가보다 모두 자기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업적 평가인 데도 불구하고 마치 강의평가처럼 엉뚱한 항목에 집착하여 강의 기준시수 이행 여부나 따지고 보강횟수 또는 강의계획서 배포나 점검하는 따위의 유치한 업적 평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연구실적 평가를 수용하는 우리 교수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4. 연구 없는 강의와 강의되지 않는 연구의 개혁

교수 업적은 마치 강의시수를 많이 확보하고 꼬박꼬박 강의를 하는 데에서 축적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수가 많다. 교수의 강의는 연구 성과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 연구 성과를 강의할 때 가장 효과적인 강의

가 이루어지며, 강의 활동 또한 학생들과 더불어 진행되는 일종의 연구활동이라는 자각이 일지 않는 한, 강의도 연구도 부실하게 마련이다. 독창적 연구 없이 생산적인 강의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동일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틀 지워져 있는 교과목에 따라 교재용으로 간행된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교수 자신이 새로 연구한 저서 차원의 논문을 가지고 새로운 강의 주제를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교수들은 끊임 없이 연구를 하게 되고 학생들 또한 상투적인 내용의 교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놓고 교수와 토론을 하며 학문적 역량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분과학문의 기본적인 몇 개 교과목만 고정적으로 설정해 두고, 다수의 교과목은 전공 교수의 새로운 연구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교과목을 새로 개설하여 강의하는 제도가 개혁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공개구직서를 보면 마치 조동일 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은 대학에서의 강의는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학 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교과목을 설정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개강의를 한결같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겠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를테면 공개강의를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나의 기존 저서 30여 가지를 차례대로 다루고, 한 번은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공개적으로 강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강의는 매주 한 편의 논문을 새로 쓰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것이다. 따라서 조동일 교수의 주장은 연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연구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연구를 토대로 하지 않은 강의'는 의족에 의지해 있는 절름발이 교육이며, '강의로 연결되지 않는 연구'는 말 못하는 병어리 학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구와 강의를 함께 가도록 해야 교육과 학문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5. 연구비 지원과 보고 방식의 전면적 혁신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조동일 교수의 지적처럼 교수들로 하여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연구 지원 방식과 보고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선 발표 지면의 족쇄부터 풀어놓아야 한다. 연구비에 의한 논문의 발표 지면 제약 때문에, 연구비에 의한 논문은 한결같이 100장 내외의 단편 논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연구비는 장편 논문을 가로막는 족쇄 구실을 할 따름이다. 저서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야말로 연구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연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연구를 부추겨야 할 연구 과제이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연구비 지원과 보고가 다 거꾸로 가고 있다. 다만 대우학술재단이 연구 저서를 지원하는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대우학술총서는 그 동안 단편적인 논문을 지원하여 얻은 학문적 성과보다 시간과 경비를 적게 들이고도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비 지원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전작 저서 형태로 연구 결과가 보고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생산적일 수 있다.

연구비 지원이 실제 연구의 장애가 되는 것은 연구계획서나 중간 및 결과 보고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계획서 양식과 자질구레한 서술 항목, 그리고 실제 지출된 경비와 상관없이 짜맞추어 보고해야 하는 돈 계산 등은 교수들의 연구를 방해하기 딱 알맞다.

특히 연구비 정산은 사실과 다르기 일쑤이므로 도덕적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어떤 교수들은 이런 일들이 힘들고 귀찮아서 연구비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가 하면, 어떤 교수들은 계획서만 세워 연구비를 여기저기서 따오고 실제 연구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연구비가 대학원 학생들의 학문적 훈련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나, 사실상 연구비의 상당 부분은 연구를 하지 않고 계획서만 세우는 교수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연구계획서 심의를 엄정하게 하여 지원과제 선정을 신중하게 하되, 일단 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간보고나 연구비 정산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로 연구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연구는 직접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연구계획서만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연구비를 따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과 반대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고, 실제로 연구한 결과물 곧 논문과 저서를 제출하여 연구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계획서 작성 및 중간보고서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비가 엉뚱하게 쓰이거나 부실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구비는 미리 받아쓰고 연구를 제때 하지 않아 속을 썩이는 연구자들도 없게 될 것이다.

6. 그래도 기업보다는 대학에 희망이 있다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은 두 가지 희망이 걸려 있다. 하나는 대학의 진정한 제도 개혁과 연구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촉구하는 것이며, 둘은 『세계문학사』 3부작 8권을 집필하여 우리 학문의 역량으로 세계 학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희망에 대하여 빛이 없다. 서울대 교수가 세계문학사를 집필하는 데 필요한 30평 규모의 연구실과 일 년에 천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제공할 기관이나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정치자금으로 매년 수십 억을 주물러도, 교수의 학문 연구에는 투자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생각이다. 말로만 세계화를

떠들 뿐 세계적인 학문을 가꾸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셈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서울의 몇 개 사립 대학과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보이고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다고 들었다. 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짧아서 대학을 옮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대학은 세계적인 학문을 꿈꾸고 그런 일에는 학칙과 제도를 넘어서서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정부나 기업보다는 대학이 아직은 더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조동일 교수의 공개구직서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나서서 해결하는 일이다. 연구하지 않는 교수나 엉터리 연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나 세계적인 연구를 구상하고 있는 교수의 연구 활동까지 얹아매는 모순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자유로워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임재해/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 강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화조사위원을 거쳐 현재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학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한국 민속과 오늘의 문화』 등이 있고, “한국민속사 시대구분의 실제와 역사인식의 전망”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